

엠버씨와 함께하는
파리이년신여행



엠버씨와 함께하는 파리이년신여행



EMBASSY

엠버씨와 함께하는

파리로 가는 길은 즐거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파리 여행지도

파리 메트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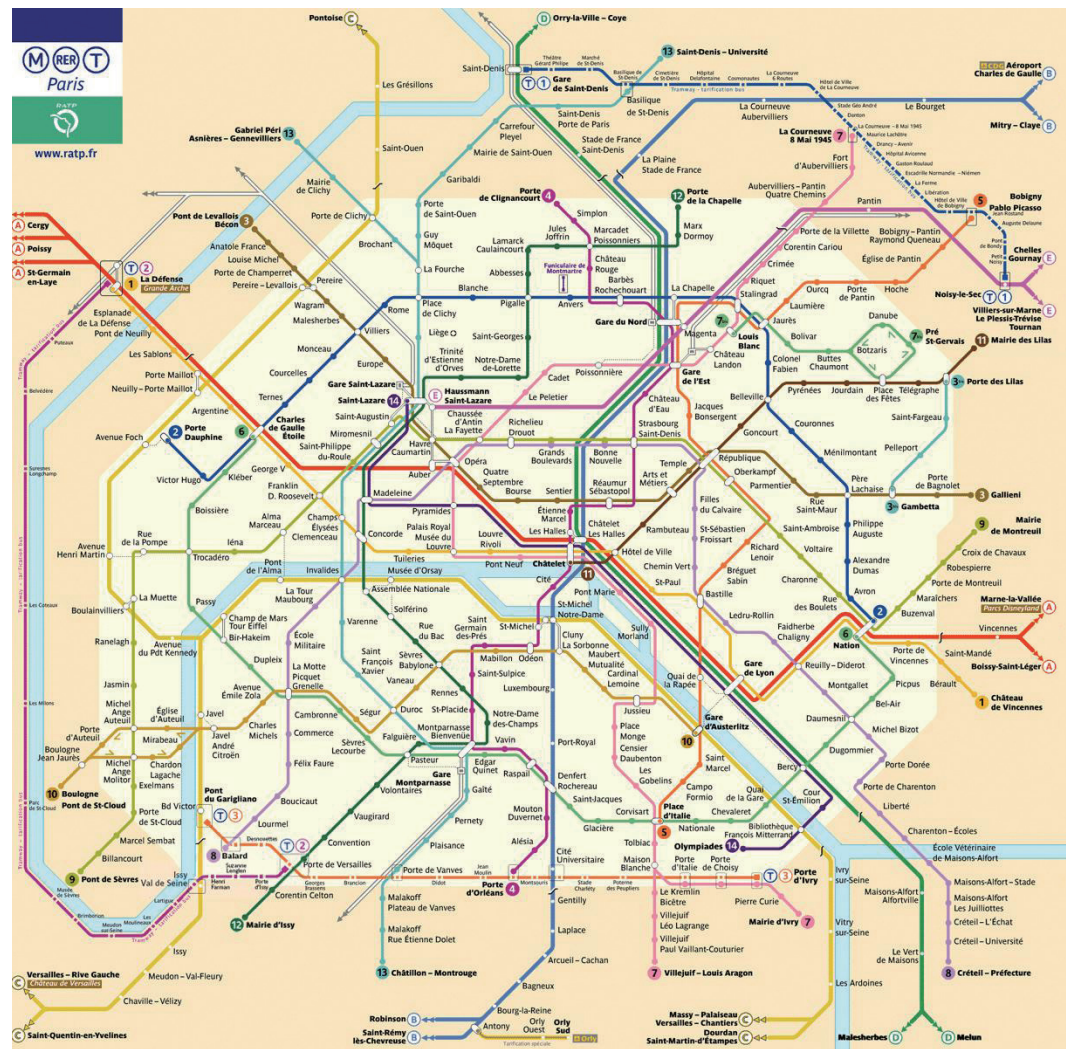
샤를드골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1시간 사이 가장 많은 강도 및 절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사관은 앙발리드, 로댕박물관, 오르세박물관 등이 인접한 7구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33-(0)1-4753-0101

프랑스의 말리내전 개입을 위한 군병력 파견 이후, 프랑스 전역은 테러위험 "적색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특히 신변안전에 주의해주세요!

"GARE"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은 기차역으로 많은 열차가 드나들어 관광객이 많고,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큰 곳입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세요.

파리시내 메트로 노선도는 각 역마다 있는 개찰구 주변 안내창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여행준비

주의하세요 · 8

여권 · 10

비자 · 12

셴겐협약 Q&A · 14

항공권 · 16

숙소 · 17

여행자 보험 · 18

운전면허 · 20

안전여행 · 21

PARIS 일반정보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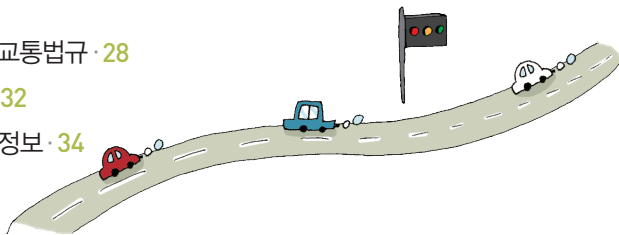
02 앰버서와 함께하는 파리여행

교통 · 26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법규 · 28

파리의 대중교통 · 3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34



03

앰버서의 사건·사고 대처 요령

앰버서가 전하는 우리국민 피해사례 · 38

경찰서에 신고하기 · 42

도난·분실 · 46

체포·수감 · 59

벌금·교통법칙금 · 50



04

앰버서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부

대사관에 연락하기 · 52

파리지역 종합병원 · 54

파리지역 경찰서 · 56

공인 통/번역사, 변호사 · 57



01

여기행준비

주의하세요

여권

비자

셴겐협약 Q&A

항공권

숙소

여행자 보험

운전면허

안전여행

PARIS 일반정보



주의하세요

파리의 낭만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소매치기, 낄치기, 강도 주의가 우선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소매치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프랑스의 치안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에서는 수시로 절도, 강도 등 각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Paris)시의 경우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및 낄치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파리 인근의 생드니(Saint-Denis)와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이유(Marseille)는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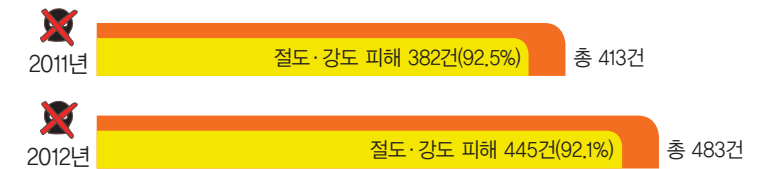
소매치기범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인들은 현금과 스마트폰 등 고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30대 여성의 핸드백이 주요 표적입니다.

하나의 가방에 거의 모든 중요 물품을 넣어다니는 젊은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2,30대 여성들의 가방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의 방지를 위해 중요 물품 및 현금, 카드 등은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쪽 어깨로만 메는 방식의 가방은 낄치기 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잠시 서류작성을 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가방도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공항이나 호텔 체크인시 손가방을 절대 손에서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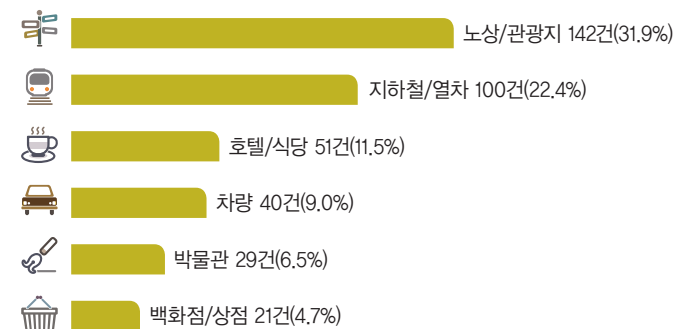
표1. 대사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 범죄 피해 현황



한 해 동안 당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 범죄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도 및 강도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대사관에 접수된 총 사건사고수(피해, 가해 포함) : 2011년 515건, 2012년 535건

표2. 장소별 절도, 강도 피해 현황(2012년 기준)



여권

“여권”은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신분증입니다.



여권관련 유의사항

- 전자여권은 특별히 표지 손상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 여권의 경우, 뒤 표지에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손상될 경우 여권 판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세요
- 여권의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의 외관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 여권에 “서명”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EU국가 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인근 국가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입국심사 전에 반드시 여권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대표전화 02-3210-0404



여권발급 관련 정보

○ 여행 중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여권 분실시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 여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준비서류

- 여권사본 또는 사진이 들어있는 각종 신분증
- 여권용 사진 (3.5cmX4.5cm) : 사진은 대부분의 기차역 또는 지하철역에 있는 즉석사진기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리포트 : 경찰리포트(피해신고접수증)는 분실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여행증명서 5.60유로 / 단수여권 12유로

○ 여권 상습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 제한 안내

최근 5년내 2회 이상 상습 분실 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결과 특이사항 없을 시 신청일로부터 30일후 여권 발급

- 최근 5년 내 2회 분실 시 : 5년 유효기간 부여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분실 시 : 2년 유효기간 부여
- 최근 1년 내 2회 분실 시 : 2년 유효기간 부여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권은 총 1,294건, 그 중 46%인 560여건의 여권이 단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었다는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권의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한민국 국민은 '췁젠지역' 국가에 가족방문, 단순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학생&인턴십 비자, 관광취업 비자, 과학자 비자, 노동비자 등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획득해야 하며 프랑스 체류비자와 관련한 정보와 절차는 프랑스 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비자)

-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
-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08 (우)120-030
- 대표번호 : (82 2) 3149-4300
- Email :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 재외국민 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 <http://fra.mofa.go.kr/korean/eu/fra/consul/overseas/index.jsp>(메인화면 → 영사 → 재외국민 등록)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벌며

프랑스의 문화와 삶을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방법?

워킹홀리데이!

- 만 18세~30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 중이며 과거에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
- 만 31세 생일 전 날 까지 프랑스 입국 가능
- 연간 정원 : (프랑스) 2,000명
- 유럽 이외의 해외영토 체류 불가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로 체류기간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 보관에 특히 유의해야 함 (여권 분실 시 그 안에 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 : <http://www.whic.kr>



셴겐협약 Q&A

셴겐협약국(25개국)은,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개요

-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정으로 2006.10.13부터 본격 시행됨 (영국 제외, 현재 유럽 25개국 가입)
- 非셴겐 국민은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 내에 최장 90일간 셴겐 가입국내 무비자 체류 허용(25개 셴겐국 체류기간 합산)

유의사항

- ① 체류기간 확인 증빙서류 항시 소지(숙박, 신용카드 영수증 등)
- ② 지정 기간보다 장기 체류하게 될 시,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

Q&A

- Q** 현재 프랑스에 무비자로 체류한지 9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셴겐협정 가입국이 아닌 영국에 몇 일간 나갔다가 다시 프랑스에 들어오면 새롭게 90일을 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아닙니다. 셴겐협정에 의해 우리국민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이미 90일의 체류기간이 지

났다면, 비셴겐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이후에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 : 4.1에 입국해 6.30까지 90일간 프랑스에 체류했다면, 최초 입국일인 4.1 기준으로 180일 이후인 10.1 이후에 프랑스로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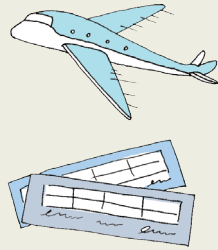
- Q**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더 여행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A** 이미 셴겐협정에서 명시한 180일 중 90일이라는 체류기간을 넘은 것으로 이 경우 프랑스를 통한 출국시 셴겐협정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우리나라와 양자 비자면제 협정(1회 입국시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을 우선시하는 이태리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Q** (여행자)여권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동안 승용차로 인근 벨기에나 네덜란드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A** 셴겐협약으로 국경이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국경검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국민이 아닌 경우,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할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셴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하실 때는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럽지역을 여행할 때는, 사실상 국경 검문소가 없어 체류사실이 여권상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체류사실 증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숙박 또는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 중에도 항상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관광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단기체류를 위한 입국이라면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프랑스공항의 입국 심사

프랑스 입국시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보통은 여권의 상태나 여행계획, 항공권 등과 관련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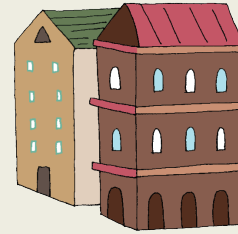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온전한 상태의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목적 방문 시에는 입국 및 출국일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숙소 주소 등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90일 이내의 관광목적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가능하면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에 대한 예약내역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관광을 위해 머물 숙소 및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숙소

인터넷 정보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과장, 허위 광고를 올려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되 정확한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시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대형 호텔에서도 객실 및 귀중품 보관소에 보관한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숙소 내 귀중품 도난 방지를 위해 물품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약한 숙소의 주소지에 숙소가 없거나, 인터넷에서 사진상으로 본 내용과 숙소의 모습이 달라 불편함을 겪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대사관이 수사, 중재 및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용 지불에 있어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가 보험

해외여행 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각종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서, 의사 소견서 등)

‘해외여행자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일반적)

-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 발생 또는 몸을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배상책임액
- 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금액
-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 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 수색, 숙박, 교통비 등의 특별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반적)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손해
- 사후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서, 의사 소견서 등)
- 차량에 두고 내린(트렁크, 캐비닛 포함) 물건의 도난 및 분실
 - ※ 보험의 손해보상 범위 및 배상 절차는 각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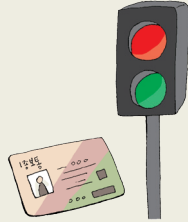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보험은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가입해주는 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서 필요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거절 및 보상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특정 지역의 여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보상범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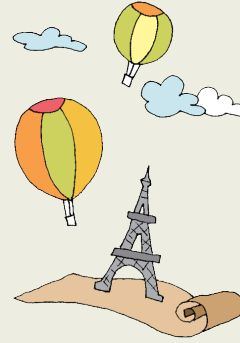
180일 이상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체류 1년 이내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절차를 마친 후, 거주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프랑스 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에 해당)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무조건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운전면허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운전 가능한 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신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무작정 우리나라의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무허가)' 운전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후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프랑스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1~3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단기간 '무비자' 방문 시에는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세요.

안전여행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부서 및 영사 콜센터,
그리고 대사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길에 함께 합니다. “동행” www.0404.go.kr

인터넷을 통해 ‘동행’에 여행자 등록을 하시면 ① 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에 대한 안전여행 정보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에게 급히 연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공관이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등이 생각나지 않으신다구요? 걱정마세요! 휴대폰 로밍시 현지 공항 도착 후 자동으로 발송되는 ‘영사콜센터’의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안내된 번호로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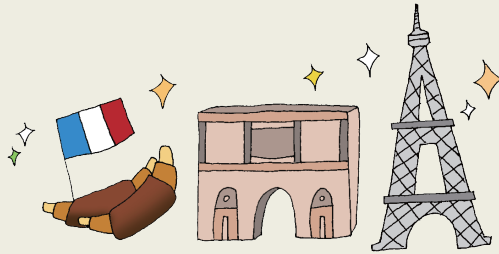
• (무료전화) 00-822-2100-0404 / 080-099-0082-5

• (유료전화) 00-822-3210-0404

신속해외송금제도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 여행 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일시적 궁핍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PARIS 일반정보



개요

- 면적 : 105.4km² (서울의 1/6)
- 인구 : 219만명 (파리광역 : 약 1,175만명)
- 시장 : Bertrand Delanoë (사회당, 2008-2014)
- 구역 : 총 20개구 (Arrondissement)
- 역사
 - BC 300년경 켈트족인 파리지(Parisii) 부족이 세느강 섬에 정착
 - AD 52년, 로마의 속주로 편입(파리시의 로마명은 '루테시아(Luthetia)')
 - 10세기 말, 카페왕조 시대에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 13세기 경, 시테섬 중심에 상업, 대학지구 발전
 - 19세기 말, 나폴레옹 3세 치하 파리지사였던 오스만 남작의 '파리개조'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

생활정보

- 통화 : 유로화(Euro), 2013. 5월 기준 1유로당 약 1,435원(1.31달러)
- 영업시간 : 식당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영업 종료시간은 4~5시, 일반 상점은 7시~7시 반 이므로, 이른 영업 종료시간에 유의

- 전화 : 직접 카드를 넣는 '주입식' 공중전화 및 코드번호를 입력하는 '비주입식' 공중전화

예)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 00 + 82 + (0)2 / (0)10 + 123-4567
국제전화코드 국가번호 지역번호 / 휴대폰 통신사 번호 전화번호

예) 한국에서 프랑스로 : 001 등 + 33 + (0)1 / (0)6, (0)7 + 1234-4567
국제전화코드 국가번호 지역번호(파리) / 휴대폰 통신사 번호 전화번호

예) 프랑스에서 프랑스로 : 01 / 06, 07 + 1234-4567
지역번호(파리) / 휴대폰 통신사 번호 전화번호

- 주요공휴일(2013년 기준) : 신정(1.1), 부활절(4.1*), 노동절(5.1), 승전기념일(5.8), 승천일(5.9*), 성신강림일(5.20*), 혁명기념일(7.14), 성모승천일(8.15), 만성절(11.1), 휴전기념일(11.11), 성탄절(12.25)(*표는 매년 날짜 변동)
- 썸머타임(일광절약시간)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평소보다 시간을 1시간 앞당겨 계산(한국과의 시차 7시간)

팁문화

보통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으나, 통상적으로는 잔돈 또는 전체 금액의 5~10%를 팁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행

기타

- 건물 층 수 차이 : 우리나라의 1층은 프랑스에서 '0층'에 해당하며 'RDC, RC(Rez-de-chausée)'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3층은 프랑스에서 2층에 해당합니다.
- 화장실 이용 : 파리 시내 번화가 및 쇼핑 아케이드 내에 무료 또는 유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압 : 220-230v, 50Hz (한국의 전기제품은 보통 60Hz입니다)
- 예약우선 : 유명 식당, 병원, 부동산 등은 보통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 없이 방문했다가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이제부터와 함께 하는
파리 여행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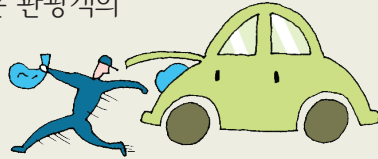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법규

파리의 대중교통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교통

관광객의 차량, 특히, 렌터카를 운전하는 관광객의 특성상 번호판 등을 통해 쉽게 범주의 표적으로 노출되니 주의하세요.



렌터카 주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정차시에는 반드시 귀중품을 보이지 않는 캐비닛이나 트렁크에 두거나 소지하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비게이션이나 사진기, 휴대폰 등이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파리 시내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도로표지판 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간혹 잘못된 진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 표지판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의 '차량 찢치기' 를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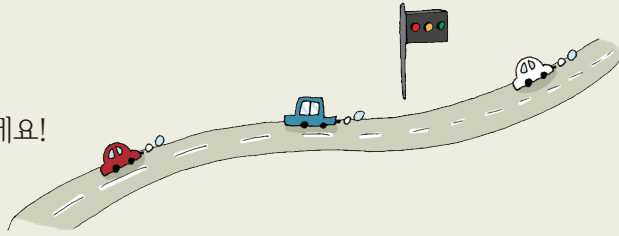
차량이 밀리는 지하차도 등에서 차량 찢치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조수석 또는 뒷 좌석에 핸드백이나 가방을 두고 운전하는 경우, 혹은 무릎 위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을 놓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 차량 정체 시 오토바이를 탄 2인조 강도가 접근하여 자동차 유리를 깨고 핸드백 등의 귀중품을 낚아채 달아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차량 탑승시에는 귀중품 등을 발 밑에 내려놓아 강도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교통 규칙에 유의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등의 경우, 운전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주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파리 개선문의 원형교차로(Round-about) 진입시 나의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선이 실선과 점선으로 함께 그려져 있는 경우, 실선 정지선에서 있는 차량의 진행이 우선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법규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법규에 주의하세요!



보이지 않는 과속감지 단속 카메라

현재 프랑스 전역에는 약 4천여 대의 과속감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과속 단속 범칙금만 7억유로(약 1조 원)에 달하는 등 날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구간 단속용 레이더'로 단속 카메라 부근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에 대해서도 구간 평균속력을 측정하여 과속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리 시내에서는 주행속도가 50km/h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90~130km/h의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제한 표지판의 위치 및 설치 빈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카메라를 미리 알려주는 네비게이션만 있어도 "벌금"

과속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대 1,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내 '간이 음주측정기' 설치 의무

지난 2012. 7월부터 시행된 새 교통법규에 따라 프랑스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차량에 '1회용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되어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3. 3. 1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으나, 당초 부과 예정이었던 '위반시 범칙금 부과'는 취소되어 별도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회용 음주측정기는 프랑스 국경 길목의 주유소나 항만 등에서 판매하며 개당 2~4유로입니다. 검문 시에는 반드시 "뜯지 않은 상태의 새 음주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니, 구입한 음주 측정기를 사전에 개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자동차에는 반드시 △형광 안전조끼, △삼각대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근 국가인 벨기에, 독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장난 '헤드라이트' 도 단속 대상

헤드라이트 등의 전구 여분을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채 주행하다가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인의 나라 프랑스,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5g/L(0.05%)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과 같습니다

※ 스웨덴/폴란드/러시아 0.02%, 일본 0.03%, 영국/아일랜드 0.08%

만일 혈중 알콜농도가 0.5g/L~0.8g/L로 측정되면 135유로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8g/L 이상이 되거나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경우, 최고 4,500유로의 벌금과 3년의 면허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최대 2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외국인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EU국가들은 차량으로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관계로 외국인 운전자가 자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에 어려움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에게는 단속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 인근 톨게이트나 가까운 마을의 은행까지 같이 가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강요하는 경찰관도 있으니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어 적발시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조치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복 경찰관의 불시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을 위해 사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로 불시에 단속(특히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혹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에서 갑자기 사복차림의 사람이 나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고지서와 함께 현장에서 범칙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이때 붉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POLICE" 라고 쓴 완장을 팔에 착용함), 이 경우 반드시 경찰관 신분을 확인한 다음 범칙금 지불 후 납부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적발시에는 경찰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프랑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될 시, 경찰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감면·선처를 요구하며 항의할 경우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추가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나 경찰서로 연행 및 구금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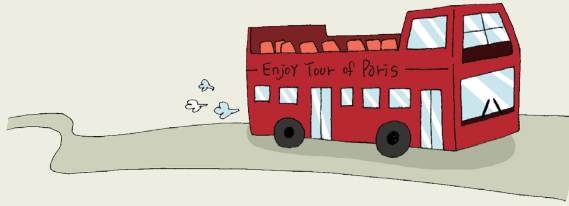
경찰 적발시에는 가능한 침착하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주행에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 신호 준수, △일방통행 도로 준수 등의 기본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될 시에는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트램(Tram)의 티켓은 '동일' 합니다.

파리시내의 메트로 및 버스, 트램(Tram)에 사용되는 티켓은 모두 동일합니다. 메트로 개찰구 주변 또는 메트로 입구에 있는 Tabac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환승시에는 지하(지하철, RER), 지상(버스, Tram)가 구분되어 교차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 시내 주요 관광지 이동에 용이합니다

파리 지하철의 운행시간은 보통 오전 5시~새벽 1시입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가까운 지하철역이 많아 시내 주요 관광지 이동에 용이합니다.

※ 지하철, 버스, 트램 티켓관련 : 버스-Tram간 환승이 가능하고 Metro-RER간 환승이 가능

버스 : 복잡한 노선도와 운행시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운행시간은 아침 7시~저녁 9시이며, 노선에 따라 밤 12시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의 노선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나 지하철 매표창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대형 파리노선도(Plan de Paris 2)를 소지하고 정차하는 정류장 및 운행 노선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 대략적인 요금을 알면,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금은 현지의 물가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 약 6.6유로 / 거리제 기본요금 2.5유로
- A요금(파리시내, 평일 10:00-17:00) 약 1.00유로/km
- B요금(파리시내, 평일 17:00-10:00 / 일요일 07:00-24:00 / 교외지역 매일 07:00-19:00) 약 1.24유로/km
- C요금(파리시내, 일요일 00:00-07:00 / 교외지역 매일 19:00-07:00) 1.50유로/km
- 4명이 탑승한 경우(간혹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음) 약 3유로
- 추가 짐(1인당 5kg 정도의 짐 1개를 초과한 두 번째 짐부터 해당) 1유로/개

택시를 탈 때는 '뒷좌석'에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파리에서의 택시는 기본적으로 손님이 조수석에 앉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수석에 앉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 10

- 도로의 교통 신호를 준수하세요 : 우측 통행 차량 우선, 신호, 정지선 등
- 도로의 교통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세요 : 무단 정차 금지 등
- 프랑스 교통체계는 우측 우선입니다. 우측에서 진입해오는 차량을 주의하세요
-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주의하세요 : 갑작스럽게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다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안전한 구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향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팔을 흔들어 진행 방향을 표시합니다.
- 주행 중 전화통화를 하지 마세요
- 야간 주행시에는 반드시 형광색 조끼(반사가 되는 옷)와 헬멧을 착용하시고, 주간 주행시에는 눈에 잘 띄는 옷과 헬멧을 착용하세요.
- 우측에 대형 차량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앞지르지 않도록 하세요
- 인도로 주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 구역에서는 천천히 주행하도록 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소매치기 주의는 기본! 세금 환급을 위한 영수증 챙기기는 필수!
환불이 불가능한 매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도 꼭 확인하세요!

세금환급(Tax Refund)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외국인의 구매행위이므로
물품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VAT)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의 조건 : 국가별로 최저 구입금액의 범위가 있으며, 상점별로
일정금액이상을 구매해야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장직원에게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상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방법의 결정
 - 카드 : 매장에서 환급서류(카드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카드번호, 수표
로 받을 때는 한국의 집주소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입)를 작성합니
다. 점원이 주는 환급서류(2장)를 보관했다가 공항에서 체크인하기 전
에 물품들과 서류를 세관에 보여주고 출국증명 스탬프를 받습니다.
 - 현금 : 매장에서 환급서류를 작성한 뒤, 점원이 주는 환급서류(2장)를
보관했다가 공항에서 체크인하기 전 물품들과 서류를 세관에 보여주
고 출국증명 스탬프를 받은 뒤 공항 내 지정장소에서(수수료를 제외
한) 현금으로 곧바로 환급받습니다. (환급의 방법은 매장마다 상이하
수 있습니다)

간혹 환불이 불가능한 매장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샹젤리제 거리 및 일부의 프랑스 브랜드 상점에서는
‘물건에 이상이 없을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불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 ‘Echange possible (exchange
available) sur presentation du ticket de caisse’ 등의 문구만 써있고,
환불에 대한 규정은 쓰여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 가
능한 경우에도 현금이나 카드결제 취소 등이 아닌, 추후 사용 가능한
동 매장의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엠버씨의 시건·사고 대처 요령

엠버씨가 전하는 우리국민 피해사례

경찰서에 신고하기

도난·분실

체포·수감

벌금·교통범칙금



엠펙씨가 전하는 우리국민 피해사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들어오는 한 시간 사이,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 공항에서

- 공항 입국장에서 짐이 많아 간수하기 어려운 틈을 타 휴대폰, 손가방 등을 도난 당했어요.
- 공항 입구에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짐을 다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어요.

TIP

실제로 공항 이용객의 대부분은 '관광객' 이므로 공항은 소매치기범과 절도범들의 주요 활동영역이기도 합니다. 중요 물품의 소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철저히 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식당에서

- 식사 중 의자 밑, 옆자리, 의자 등받이 등에 놓아 둔 가방을 도난 당했어요.
- 패스트푸드 점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방이 없어졌어요.

TIP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방을 손에 들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많은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식사 시 가방을 무릎 위나 의자와 등의 중간 위치 등에 두어 만일의 경우 도난을 감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점에서

- 백화점에서 면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 물건 구입 중 쇼핑카트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을 순식간에 도난당했어요.
- 옷이나 신발 등을 착용해보는 사이 가방 속 지갑을 도난당했어요.

TIP

외국인 구매자(특히 한/중/일 동양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현금결재를 선호하여 쇼핑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쇼핑센터 및 각종 유명상점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4. 호텔에서

- 호텔 체크인 서류작성을 위해 잠시 발 옆에 내려놓은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 호텔 수화물 보관소에 맡긴 귀중품을 도난당했어요.
- 새벽에 호텔 숙소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귀중품을 가지고 나갔어요.
- 조식을 먹기 위해 잠시 식당에 내려간 사이, 빈 방에 누군가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갔어요.
- 호텔 조식시, 셀프 바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당했어요.

- 호텔 현관으로 나오다가 2인조 오토바이 강도에게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했어요.

TIP

호텔 이용자의 대부분이 관광객이며, 여행일정을 시작하는 관광객들은 많은 여행경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호텔 내부 및 주변지역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상 CCTV 등의 증거가 있어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고, 보상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호텔 방을 나설 때는 항상 주의하도록 합니다.

5. 메트로(Métro) / 열차(RER)에서

- 메트로에 탑승해 출입문쪽에 서있었는데, 역에 정차하여 문이 열리는 틈에 열차 밖에 서있던 소매치기범이 가방(또는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 메트로 역을 빠져나와보니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속 소지품을 도난당했어요
- 메τρό를 타기 위해 입구에서 지도를 보는 사이에 가방을 소매치기당했어요
- 열차 승차권 구입을 해매는 나를 도와준 흑인이 지나가고 난 뒤,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 메트로 입구에서 갑자기 10대 소년들이 둘러싸고 정신을 빼놓더니 지갑을 빼갔어요
- 메트로 입구에서 몇 명의 소녀들이 서명을 요구하며 빙 둘러싸더니 가방을 훔쳐갔어요
- 아침, 저녁시간대에 승객이 드문 틈을 이용, 2~3명이 에워싼 후 핸드폰, 가방 등을 강취했어요.

TIP

-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메트로는 범죄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절대 열차 탑승 후 문 쪽에 기대어 서있거나 앉지 않도록 하고, 가방을 시야가 닿는 몸 앞쪽으로 두어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샤를드골-파리 시내 구간의 메트로(RER B선)에서 가장 많은 소매치기가 발생합니다.

6. 유명 관광지 / 박물관에서

-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 가방을 발 아래에 내려놓았는데,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 전시물을 구경하는 사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여권과 휴대폰을 도난당했어요
- 자신도 여행객인 척 지도를 펼쳐 길을 묻던 사람이 지나간 후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 일부러 크로스보 멘 가방의 줄을 뒤에서 칼로 끊고 순식간에 가방을 훔쳐갔어요
- 자신도 여행 중이라던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외국인이 건네준 초코렛을 먹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외국인이 모든 귀중품을 들고 도망갔어요.
- 10대 청소년 3~4명이 기부금 서명요구를 해오며 지갑을 훔쳐갔어요.
- 흑인 3~4명이 팔목에 실팔찌를 매어주면서 금품을 요구했어요.(몽마르트)

TIP

점점 노상 소매치기의 수법이 다양,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밝은 곳에서도 가리지 않고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항할 경우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방 하나에 모든 귀중품을 몰아넣지 않도록 하고 뒷옷의 안 주머니, 바지 안쪽에 별도로 만든 주머니 등을 이용해 현금 및 귀중품을 분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본인이 아닌 경우, 경찰서에 대리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프랑스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며, 가장 흔한 절도, 강도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한글로 된 신고서 양식이 파리 시내 각 경찰서에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범죄피해 발생시 프랑스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 파리 경찰청은 파리 시내 전 경찰서(20개)에 범죄피해 신고를 위한 민원창구를 24시간 개설하고 있습니다.
- 민원 창구에서 한국어 상담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사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면 정식으로 “범죄 피해 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경우, 프랑스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전에 즉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도난 및 사용 정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절차

- ① 범죄피해 신고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 지역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 도난시에는 대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은 후 신고)

- ② 경찰서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범죄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 ③ 경찰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거나 창구직원이 주는 한국어-불어로 된 “범죄피해사전신고서(Fomulaire Français-Coréen de Pré-déclaration de plainte)”를 작성, 제출합니다. (신고서 양식이 불어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에 불편이 없음)
- ④ 사전신고서는 피해조서를 작성할 때 기본자료로 사용되므로 되도록 피해내용, 장소, 범인 인상착의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⑤ 사전신고서를 작성한 후 기다리면 지정된 사건조사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조사실로 가서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1~2시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 ⑥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와 사전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피해 조서’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Dépôt de plainte)’를 작성합니다.
- ⑦ 피해조서와 고소장 작성이 끝나면 담당 경찰과 피해자가 서명합니다.
- ⑧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조서”와 “고소장” 그리고 “피해신고서 (récépissé de déclaration)”를 각 1부씩 받으면 모든 피해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경찰 피해신고서는 귀국 후 각종 보험 청구에 필요합니다)

경찰서 신고서 양식(예시)



2개 국어 한국어-불어 범죄피해 사전신고서
아래 피해내용을 반영시킨 범죄피해 신고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RMULAIRE FRANÇAIS-CORÉEN DE PRÉ-DÉCLARATION DE PLAINTE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établir un récépissé de déclaration de plainte selon le rapport ci-dessous

신고 의뢰서 작성일 (Paris le) : 일 (Jour) _____ 월 (Mois) _____ 년 (Année) _____

피해자 (VICTIME)

성 (Nom).....
 이름 (Prénom).....
 생년월일 (Né le) 일월년 (jour-mois-année).....
 출생지 (À).....
 직업 (Profession).....
 국적 (Nationalité).....
 주소 (Adresse).....
 전화 번호 (Téléphone).....
 전자 우편 주소 (E-mail).....
 파리에서의 주소 (Adresse à Paris).....
 파리에서의전화 번호 (Téléphone à Paris).....
 파리에서 사용하는 전자 우편 주소 (E-mail à Paris).....

신고인 (PLAIGNANT) 위의 피해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SI DIFFÉRENT)

성 (Nom).....
 이름 (Prénom).....
 생년월일 (Né le) 일월년 (jour-mois-année).....
 출생지 (À).....
 직업 (Profession).....
 국적 (Nationalité).....
 주소 (Adresse).....
 전화 번호 (Téléphone).....
 전자 우편 주소 (E-mail).....
 파리에서의 주소 (Adresse à Paris).....

REPUBLIQUE FRANÇAISE
Liberté Egalité Fraternité

1

강도, 절도 피해시(현금, 여권, 신용카드, 핸드폰 등 피해시)

- 손해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용카드 도난(정지)신고 ▶ 경찰신고 ▶ 경찰서 조사 ▶ 신고접수증 발급 ▶ 한국 대사관(사건, 사고) 연락 ▶ 여권재발급, 긴급송금 신청 ▶ 여행 계속 ▶ 귀국 후 보험사에 피해보상 요구

- 손해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도난(정지)신고 ▶ 한국 대사관(사건, 사고) 연락 ▶ 여권재발급, 긴급송금 신청 ▶ 여행 계속 ▶ 귀국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 차량간 사고(부상 등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가능한) 사고장면 촬영 ▶ 안전지대로 이동 ▶ 사고경위서(constat-amiable) 작성 ▶ 상호 1부씩 소지 ▶ 계속 운행(또는 견인) ▶ 보험사 통보 및 수리

- 차량간 사고(부상 등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경찰신고 및 현장보존 ▶ 경찰조치에 따라 행동 / 사고 경위서(constat-amiable) 작성 ▶ 병원후송 등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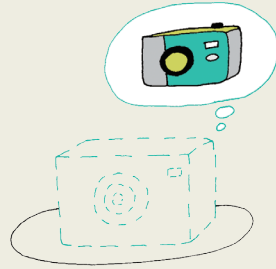
- 대인사고(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

경찰신고 및 현장보존 ▶ 경찰조치에 따라 행동 / 사고 경위서(constat-amiable) 작성 ▶ 병원후송 등 후속조치

*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에는 현장에서 통증이 없더라도 다음날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사고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 조치하도록 합니다.
 ** 차량 보험사는 사고 후 8개월 이내에 배상제안을 해야 합니다.

도난·분실

프랑스의 경우, 절도·강도 등으로 인한 도난/분실 사고가 전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고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24시간 근무)에 도난, 분실 신고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 페이지 '프랑스 경찰에 신고하기' 참고)

여권

여권 분실시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준비서류

- 여권사본 또는 사진이 들어있는 각종 신분증
- 여권용 사진 (3.5cmX4.5cm) : 사진은 대부분의 기차역 또는 지하철역에 있는 즉석사진기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리포트 : 경찰리포트(피해신고접수증)는 분실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서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여행증명서 5.60유로 / 단수여권 12유로

금전

금전(현금, 카드) 분실로 인하여 긴급 여행경비가 필요할 경우, 외교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외교부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하

도록 요청한 후, 대사관에서 현지화(유로)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 휴대폰은 분실 즉시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분실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서 신고에 앞서 한국에 있는 통신사 또는 카드사에 전화,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즉시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사 또는 카드사와 전화가 잘 안 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신 신고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사건 관할 경찰서, 연락처,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 여권 분실시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 여행경비를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기

대사관에서 받을 수 없는 지원

- 금전의 대부
- 현지 경찰에 피해신고서 대리 제출
- 잃어버린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보상
-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핸드폰 등 분실물 관련 사용정지 수속 대리
- 분실/도난 관련 유실물 수색, 범죄수사, 범인체포 등
- 항공권 재발행 수속 대행

- 핸드폰을 분실하여 한국으로 전화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공중전화에서 '수신자부담 전화(Collect Call)'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전화 걸기 : 0800-9900-82 누른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

- 핸드폰 분실신고 및 보상센터 전화번호

통신사	분실신고 전화	상담전화
SKT	(00-82) 1599-0011	(00-82) 1599-4962
KT(올레)	(00-82) 1588-0010	(00-82) 1577-9420
LGU	(00-82) 1544-0010	(00-82) 1544-0144

- 신용카드사별 분실신고 및 상담전화

카드사	분실신고 전화	상담전화
VISA / MASTER	08 92 70 57 05	
American Express	01 47 77 72 00	
KB국민카드	(00-82) 1588-1688	
신한카드	(00-82) 1544-7200	(00-82) 1544-7000
하나 SK카드	(00-82) 1599-1155	
롯데 카드	(00-82) 1588-8300	(00-82) 1588-8100
삼성 카드	(00-82) 1588-8900	(00-82) 1588-8700
현대 카드	(00-82) 1577-6200	(00-82) 1577-6000
비씨 카드	(00-82) 1588-4000	(00-82) 1566-4000
외환 은행	(00-82) 1588-6700	(00-82) 1588-3200
우리 은행	(00-82) 1588-9955	(00-82) 1599-9955
농협	(00-82) 1588-1600	(00-82) 1644-4000
시티은행	(00-82) 1566-1000	

체포·수감



프랑스에서 체포/수감될 시, 재빨리 대사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영사면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체포, 구금시 본인 희망에 따라 영사 면담 및 가족에게 관련사실 통보
- 편지, 전화 등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연락
- 현지 법률제도, 면회, 편지교환, 근로 가능성 등 관련규정 설명
- 변호사 또는 통역사 정보 제공
-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우리 국민에게 특수한 질환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교도소 의료진에 전달 및 적절한 주의 당부
- 차별적, 비인도적 대우를 당한 경우, 관계 당국에 처우개선 요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없는 지원

-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석방 또는 감형 요구
-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특별대우 요구
- 보석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금전적인 지원
- 재판시 통, 번역 제공

벌금·교통범칙금

교통범칙금 및 각종 벌금의 부과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프랑스에서 벌금 또는 범칙금 지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되며, 이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이동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90유로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벌금 부과 또는 자동차 과속 범칙금(90~150유로)에 대한 면제 또는 삭감을 도와달라고 대사관에 요청하실 경우,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주재국 법률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04

엠베서시가 알려주는
전환시변호사부

대사관에 연락하기

파리지역 종합병원

파리지역 경찰서

공인 통/번역사, 변호사

대사관에 연락하기

- 대표번호 : 01-4753-0101 (주간)
- 당직번호 : 06-8028-5396 (야간, 휴일)

대사관에서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사건, 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임시여권 발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의 사법체계에 재판기간,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우리 국민이 범죄피해 및 가해사건 연루 시 현지국민에 비해 차별적 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자에 협조 요청
- 국내 연고자들과의 연락 및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현황 보고 지원

대사관에서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각종 비용지불
- 예약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범죄수사, 범인체포 등 사법권 행사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 기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필요시 각 업무 담당자의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여권 : +33-(0)1-4753-6987 (민원실 09:30~16:30 / 전화문의 09:30~18:00)
- 공증 : +33-(0)1-4753-6988 (민원실 09:30~16:30 / 전화문의 09:30~18:00)
- 비자 : +33-(0)1-4753-6989 (민원실 09:30~12:30 / 전화문의 09:30~18:00)
- 사건사고 : +33-(0)1-4753-6995 (09:30~18:00)
- 당직전화 : +33-(0)6-8028-5396 (야간, 휴일)

파리지역 종합병원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

일반의 (médecine généraliste)

- Dr. Thierry Lafitte
주소 : 151 Av. de Wagram 75017 Paris
전화 : 01 42 27 57 22
- Dr. Francis Slattery
주소 : 10 Av. Eylau 75016 Paris
전화 : 01 47 42 02 34
- Dr. Nancy Salzman
주소 : 1 Av. Lowendal 75007 Paris
전화 : 01 45 63 18 43
- Dr. Stephen Wilson
주소 : 5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전화 : 01 48 87 21 10

소아과 (Pédiatrie)

- Dr. Jacky ISRAEL
주소 : 15 Av. d'Eylau 75116 Paris
전화 : 01 47 27 18 02

내과 (Médecine)

- Dr. Jacques Lambrozo
주소 : 59 rue Boissière 75116 Paris
전화 : 01 45 53 36 26

산부인과 (Obstétrique)

- Dr. Jerome Berard
주소 : 5 rue Paul Valery 75116 Paris
전화 : 01 47 27 18 02

약국 (Pharmacie)

- 24시간 영업
주소 : 84 Av.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전화 : 01 45 62 02 41
- 야간 영업
주소 : 54 rue du Commerce 75015 Paris
전화 : 01 45 79 75 01
- CITY-PHARMA 한국인 직원 상주
주소 : 26 Rue du Four 75006 Paris
지하철 10호선 Mabillon
Rue du Four와 Rue Bonaparte
교차로 오른쪽 코너
- Pharmacie Monge
주소 : 1 Place Monge 75005 Paris
한국인 직원 안내



종합병원

지역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4구	Hôtel -Dieu (1 Place du Parvis Notre-Dame)	01-4234-8232 01-4234-8233
4구	Hôtel-Dieu de Paris (2 rue d'Arcole 75004 Paris)	안과 종합병원
10구	Hopital Lariboisière (2 rue Ambroise-Paré)	01-4995-6443 01-4995-6445
10구	Saint-Louis (1 Av. Claude-Vellefaux)	01-4249-9117
12구	Saint-Antoine (184 rue du Faubourg Saint-Antoine)	01-4928-2708
13구	Pitié-Salpêtrière (83 Bd de l'hôpital)	01-4217-7247
14구	Cochin (27 rue du Faubourg Saint-Jacque)	01-5841-2722 01-5841-2735
15구	Hôpital européen Georges-Pompidou (20 rue Leblanc)	01-5609-3224 01-5609-3265
18구	Bichat - Claud - Bernard (46 rue Henri-Huchard) (48 Bd Sérurier)	01-4025-8137
20구	Tenon (4 rue de la Chinetel)	01-5601-6405
*	독극물 신고센터 (Hôpital Fernard WIDAL) 200 rue du Faubourg Saint Denis 75475 Paris Cedex 10	01-4005-4848
*	아메리칸 종합병원 (Hôpital Americain) 63 Bd Victor Hugo 92200 Neuilly-sur-Seine	01-4641-2525

아동 종합응급병원

지역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2구	Armand-Trousseau (26 Av du Dr Arnold Netter)	01-4473-6740 01-4473-6909
15구	Necker (149 rue de Sèvres)	01-4449-4290 01-4449-4291
20구	Robert-Debré (48 Bd Sérurier)	01-4003-2270

파리지역 경찰서

지구	주소	전화번호	Métro
1구	45 place du Marche Saint honore 75001	01 47 03 60 00	7/14 Pyramides 1 Tuilerie
2구	18 rue du Croissant 75002	01 44 88 18 00	3 Sentier, Bourse 9 Grandes Boulevards
3구	4/6 rue aux Ours 75003	01 42 76 13 00	4 Etienne-Marcel
4구	2 place Bourdon 75004	01 40 28 22 00	1/5/8 Bastille
5구	4 rue de la Montagne Ste-Genevieve 75005	01 44 41 51 00	10 Maubert-Mutualite
6구	78 rue Bonaparte 75006	01 40 46 38 30	4 Saint-sulpice
7구	7/9 rue Fabert 75007	01 44 18 69 07	8/13 Invalides
8구	1 avenue du General Eisenhower	01 53 76 60 00	1/13 champs-Elysee clemenceau
9구	14 bis rue Chauchat 75009	01 44 83 80 80	8/9 richelieu-Drouot
10구	26 rue Louis Blanc 75010	01 53 19 43 55	7 Louis Blanc
11구	12/14 Passage Charles-Dallery 75011	01 53 36 25 00	9 Voltaire /Ledru-Rollin
12구	80 Avenue Daumesnil 75012	01 44 87 50 12	1/14 Gare de Lyon
13구	144 boulevard de l'hopital 75013	01 40 79 05 05	5/6/7 Place d'Italie
14구	114/116 avenue du Maine 75014	01 53 74 14 06	13 Gaité
15구	250 rue Vaugirard 75015	01 53 68 81 00	12 Vaugirard
16구	62 Avenue Mozart 75016	01 55 74 50 00	9 Ralelagh
17구	19/21 rue Truffaut 75017	01 44 90 37 17	2/13 Place de Clichy / Rome
18구	79/81 rue de Clignancourt 75018	01 53 41 50 00	12 Marcadet -Poissonniers
19구	3/5 rue Erik Satie 75019	01 55 56 58 00	5 Ourcq
20구	3 rue Gatines 75020	01 44 62 48 00	3 Gambetta

공인 통/번역사, 변호사

프랑스 공인 통번역사

- 파리지역 : 박무영 06-7541-4718
- 몽펠리에 지역 : 이정미 06-6308-9223
- 보르도 지역 : 김향아 06-5698-6482
- 스트라스부르 지역 : 김미란 06-8279-7897
- 리옹지역 : 최지안 04-7542-9046
- 베르사이유 : 장보윤 06-4848-4248
- 툴루즈 : 김미경 06-7996-0730

변호사

- 김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Alerion)
전화 : 01-5856-9700
주소 : 137 rue de l'Universite 75007 Paris
- 김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Malesherbes)
전화 : 01-5856-2700
주소 : 97 Bd Malesherbes 75008 Paris

※ 남불지역 방문 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시, 영사협력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박문수(칸느, 니스지역) 06 0952 3762



멤버씨와 함께하는

파리이인쇄여행

발행처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발행일 2013년 6월

인쇄일 2013년 6월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